



주 제:	“실천하는 사랑”	“연중 제 15 주일 (다해)”	2007년 7월 15일
복음 묵상:	루카 10,25-37	신명 30,10-14	콜로 1,15-2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관심을 기울이며 나에게 다가오기를 마음 속 깊은데서 갈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라, 밥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웃으로 다가갈 때, 모든 이는 내게 이웃으로 다가올 것이다. (인천 주현철 신부님 강론 에서)

공지사항

1. 8 월달 본당에서 있게 될 **복가주 성령대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회가 되도록 **목주의 9 일 기도를 6월 25일 부터 8월 17일 까지 54일간 바칩니다.** 여러분의 중재기도로서 참석하시는 많은분들이 성령의 인도로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에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일 미사에 한번씩은 꼭 바쳐 주십시오.
2. **복가주 성령대회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권유해 주시고 모든 성령 가족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0,25-37]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 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분 명상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고민에 빠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며 결단을 내려야 할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은 홀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은수자에게 찾아가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수자는 자신을
찾아온 왕을 본 척도 하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하였습니다.
왕은 그가 일을 빨리 마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을
거들었습니다. 숲 속에서 부상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왕은 그를 돌보아 주었고 다음날 그 부상자가 자신의 정적임을 알게
되자 화해하였습니다. 수도자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라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쫓기듯이 살지 말 것

저자

송봉모

지금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물리쳐야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걱정과 분주함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물리치고 거둬 훈련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살고 싶어한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타처럼 살아야 한다.
마르타처럼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일해야 한다.
일거리는 도처에 널려 있다.

고요한 시간, 영적 시간을 가지려 하면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영혼의 바람을 끌럭 삼켜버린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기도하다가도 초인종 소리에 달려나가야 하고
찬미 시간을 가지려고 성가책을 펼치다가도 깜박 잊고 있었던 은행일 때문에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일에 쫓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후회스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도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바쁘게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 더 여유로워질 때 영혼의 바람을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말자.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